

부도 위기 농가, 탈출구는 있다

농어촌공 전북, 올해 경영위기농가 363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2019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363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

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의 소득이 50% 이상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만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이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민없이 1577-7770에 문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t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농협, 양돈농가 어려움 덜고자 국산 돼지고기 촉진 운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몰(wv.nonghyupmall.com)을 통해 회사나 집에서 편리하고 값싸게 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일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구입용 삼겹살을 최대 4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돼지고기와 곁들이면 좋은 쌈 채소, 양념 등 200여개 상품에 대해서도 동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행사에 적용되는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무료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숫자 '3'이 두 번 겹치는 삼겹살데이는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농협에서 제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동참하여 어려운 축산농가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6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선언서 필사와 낭독' 행사를 가졌다.

모두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농협은행 전북본부, 독립선언서 필사·낭독 통한 독립운동정신 고취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6일 지역본부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선언서 필사와 낭독'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표했으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독립선언서의 문단을 나눠 단어 및 문장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기고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낭독 후에는 100년 전 독립을 염원했던 간절한 마음으로 3·1운동 만세 재현행사로 진행했다.

아울러, 필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독립선언서의 문장에서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와 독립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임직원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필사하며 그 시대 애국지사들의 굳은 의지와 애국 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3·1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난 10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북본부, 'Eagle Eye 진단팀' 본격 활동 들어가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는 27일 정은호 본부장을 비롯,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간부, 도내 진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agle Eye 진단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진단 전문가들은 "첨단 과학화 장비를 총 동원해 안정적 전력 공급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발

견하면 즉시 조치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2010년 전사 최초 본부 합동 진단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Eagle Eye 진단팀에서는 사업소 진단 인원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3년 전부터 인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소 순회 점검 시

단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Eagle Eye 진단팀은 300여명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매주 수요일 2개 팀이 10개 조로 나눠 10개월 동안 본부 및 사업소의 모든 배전설비에 대해 초음파, 열화상 카메라, 광학 쌍안경 및 카메라 등 최첨단 과학화 장비를 동원 불량 기저 적출 및 위해 개소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정은호 본부장은 "고장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선제적 대응 자세를 강조한

후 우리 본부가 그동안 최첨단 진단 장비 사용에 대한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일선 현장에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진단 요원들은 "순시 지원에 적극 나서 무결점 전력공급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 Eagle Eye 진단팀은 발대식을 가진 후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 원주군 봉동읍에 있는 산업 단지의 전력설비를 진단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조합장선거 경쟁률 2.6대 1

조합 109곳에 283명 등록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전북지역은 109개 조합 선거에 28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2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도내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283명이 후보로 등록해 2.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후보등록이 완료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월 12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전북지역에서는 농·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후보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조합장 후보는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진안지역 후보자 10명, 조합장선거 등록 마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진안지역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다.

2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안지역 후보자는 총 10명으로 진안농협 2명, 부귀농협 2명, 무진장축협 1명, 전북인삼농협 2명, 산림조합 3명 등이 등록했다.

등록을 마친 진안지역 조합장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 ▲진안농협 = 황평주(58), 허남규(62)
- ▲부귀농협 = 김한국(47), 정종욱(60)
- ▲무진장축협 = 송제근(64)
- ▲전북인삼농협 = 박종현(54), 신인성(42)
- ▲진안산림조합 = 김중준(54), 이재현(66), 전해석(66)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중기청, 예비창업자 양성 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15개 주관기관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올해에 57억원을 투입하여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도출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창업실습교육(2개월)과 시제품제작 및 시장검증(3개월) 등의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과 교육공간 및 운영인력 등 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선정하는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은 기능에 따라, 교육전문기관 10개, 비즈니스모델 특화기관 5개로 총 1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운영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부(www.mss.go.kr)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3월 4일 창업진흥원(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www.mss.go.kr)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